

2017년 재정건설위원회

국외(이탈리아) 연수 보고서

【기간 : 2017. 9. 18. ~ 9. 26.】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I. 연수개요	1
1. 연수목적	1
2. 연수기간	1
3. 연수국가	1
4. 연수단 구성	2
5. 주요 연수일정	3
II. 이탈리아 현황	4
1. 일반현황	4
2. 한국과의 관계	4
3. 이탈리아 경제의 특징	5
III. 일정별 방문지 현황	9
1. [1일차] - 2017. 9. 18.(월)	9
2. [2일차] - 2017. 9. 19.(화)	9
3. [3일차] - 2017. 9. 20.(수)	15
4. [4일차] - 2017. 9. 21.(목)	18
5. [5일차] - 2017. 9. 22.(금)	22
6. [6일차] - 2017. 9. 23.(토)	28
7. [7일차] - 2017. 9. 24.(일)	33
8. [8일차] - 2017. 9. 25.(월)	37
IV. 연수에 따른 재정건설위원회 참고사항	41
1. 자동차 및 교통체계	41
2. 광고물	43
3. 문화재 관리	43
4. 협동조합 육성	44
5. 관광인프라 구축 및 육성	45

2017년 재정건설위원회 국외(이탈리아) 연수 보고서

해외 선진도시를 방문하여 도시기반시설, 도시재생 공공시설 등 재정·건설 분야 유관기관 현장견학을 통해 선진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의원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문화탐방을 통한 국제안목을 배양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

I 연수개요

1. 연수목적

- 해외우수 의회의 운영과 사회보장시스템 등의 벤치마킹을 통한 역량강화
- 해외 선진 문화탐방을 통한 국제적 안목 배양
- 제7대 후반기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간 유대 강화

2. 연수기간

- 연수기간 : 2017. 9. 18.(월) ~ 9. 26.(화) 【7박9일】

3. 연수국가

- 연수국가 : 이탈리아
- 주요방문지 : 로마, 피사, 천케테레,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폼페이, 나폴리 등

4. 연수단 구성

- 연수인원 : 총12명(의원 8, 의회사무국 4)

연 번	직 위	성 명	비 고
의 원(8)			
1	의 장	김 호 진	- 의원 해외 비교시찰 기획 및 운영 총괄
2	부의장	이 기 수	
3	재정건설위원장	김 용 일	- 의회제도, 지역경제분야 자료수집
4	의 원	장 숙 이	
5	의 원	홍 길 식	- 도시계획, 도시재생, 교통 분야 자료수집
6	의 원	김 순 길	
7	의 원	류 상 호	- 사회복지, 문화관광분야 자료수집
8	의 원	윤 선 경	
직 원(4)			
1	전문위원	석 우 균	- 행사지원총괄 및 상임위원회별 자료수집
2	의안팀장	선 승 화	- 의원보좌, 사진촬영
3	주 무 관	신 동 호	- 예산집행 및 정산
4	주 무 관	이 지 은	- 보고서작성 기초자료수집

※ 여행사 : 세계항공여행사(가이드 : 이희동, 현지가이드 - 이선종)

5. 주요 연수일정

일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연 수 일 정
제1일 9/18(월)	로마	OZ651	13:00 18:40	- 인천국제공항 출발(비행시간 12시간 40분 소요) 로마 도착
제2일 9/19(화)	오르비에토 아씨시	전용차량	전일	- 이탈리아 도로관리청(ANAS) 방문 - 피사
제3일 9/20(수)	피사 친퀘테레	전용차량	전일	- 밀라노 방문(두오모성당, 스칼라극장 방문)
제4일 9/21(목)	밀라노 베로나	전용차량	전일	- 가르다호수 - 베네치아 방문, 산마르코성당
제5일 9/22(금)	베니스	전용차량	전일	- 피렌체, 토스카나협동조합 방문
제6일 9/23(토)	피렌체 산지미나노	전용차량	전일	- 산지미나노(세계문화유적지) 방문
제7일 9/24(일)	로마 폼페이 나폴리	전용차량	전일	- 폼페이 유적지, 나폴리 방문
제8일 9/25(월)	로마	전용차량 OZ652	전일 22:50	- 바티칸시국 및 바티칸 박물관 견학 - 콜로세움, 트레비분수 등 "모든 길은 로마로" 견학 - 로마공항 출발(비행시간 10시간 30분 소요)
제9일 9/26(화)	인천		16:10	- 인천국제공항 도착

II 이탈리아 현황

1. 일반현황¹⁾

- 국명 : 이탈리아 공화국 (Repubblica Italiana, Italian Republic)
- 기후 : 지중해성 기후 (연평균 15.6℃)
- 면적 : 302,072 km² (한반도의 1.5배)
- 인구 : 6,200만명 (2016년 현재)
- 언어 : 이탈리아어
- 수도 : 로마(인구 270만명)
- 종교 : 가톨릭(인구의 약 98%)
- 정치체제 : 민주공화제
- 국가원수 : 대통령(Sergio Mattarella, 2015년 2월 취임)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총리(Paolo Gentiloni Silveri, 2016년 12월 취임)
- 의회 : 양원제 상원: 315석(임기 5년의 선출직 315석, 종신직 별도), 하원: 630석(임기 5년)

2. 한국과의 관계

○ 한국과 이탈리아의 교류는 16세기 말 임진왜란 이후 일본, 중국에 체류하던 이탈리아 신부들을 통한 간접 교류로 시작하여, 1884년 6월 26일 한·이 수호통상조약과 부속통상장정, 그리고 한·이 수호통상조약 세칙 및 세칙장정이 체결됨.

○ 1957년 양국에 설치된 공사관을 1959.4.16 한·이 공동성명으로 대사관으로 승격하였으며, 2014년 6월에는 양국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한·이탈리아 창조경제 비즈니스 포럼을 밀라노에서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정부·경제·문화 행사 개최

○ 양국 관계는 2000년대 들어 그 이전과 위상이 달라진 바, 2000년 한국 정상의 첫 이탈리아 방문 이래 10여 년간 양국 정상의 방문이 8차례나 성사되고 G20 등 다자회의 계기의 양자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등 그 격과 중요성이 크게 높아짐

○ 양국은 G-8, ASEM, EU, G20의 틀에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1) 자료출처 : 이탈리아 주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3. 이탈리아 경제의 특징

○ GDP 규모 세계 제9위, EU내 제4위 경제대국 (2015년 IMF 수치)

○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경제

- 국가주도로 중화학공업 등 기간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지방 전통산업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민간중소기업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특화지역이 발달함에 따라 1950-1960년대 고도성장(연평균 5.5%)을 달성하면서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기반 구축

○ 유럽공동시장 참여를 통한 경제발전

- 이탈리아는 1957년 유럽공동시장 창설 당시부터 참여함으로써 농업발전에 혜택을 입어왔으며, 산업분야도 역내 수출확대로 활로 모색.

- EU 통합 확대 추진에의 적극적인 참여 및 EU 차원의 경제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자국의 경제 성장 추구

○ 남·북 지역 간 격차

- 이탈리아는 유럽 경제강국 중의 하나이나, 산업이 발달된 북부지역(주로 민간 기업들 소재)과 그렇지 못한 남부 농업지역(주로 국영기업들 소재)간의 심한 소득 격차 등이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남부지역의 면적은 이탈리아 전체의 40%, 인구는 35%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득은 25%에 불과하며, 농업인구 비율은 중·북부의 2배인 반면, 제조업 인구 비율은 여타지역의 1/2에 못 미치고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도 중·북부에 비해 크게 저하

- 이탈리아 정부는 1950년대부터 남부지역개발법을 제정, 남부 지역의 투자 시 투자자금의 무상지원 및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낮은 노동 생산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등으로 그동안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탈리아 경제의 강점

-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기초로 제반 산업이 고루 발달

- 전통 중소기업은 세계시장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는 경영능력을 배양하면서 세부 분야별로 독자적인 첨단기술을 개발, 각종 기계를 비롯하여 섬유, 의류, 가구, 피혁, 귀금속, 식품, 공예품, 염색,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유지

- 이탈리아 경제는 제조업 부문에 강한 면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산업은

자동차, 기계, 화학, 가구, 의류 및 직물, 가죽 및 신발, 식품가공, 세라믹 등 발칸국가, 북부아프리카 및 중동 등 여러 경제권에 인접한 지정학적 위치로 자동차, 기계, 화학 등 기술 집약 제품과 섬유, 가구 등 고급 소비재가 주요 수출품이며, 원유 및 원자재, 부품소재 등을 수입

○ 이탈리아 경제의 취약점

-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로 인해 규모의 경제면에서 국제경쟁력 약화, 방만한 재정 운영, 노동시장 경직성, 인프라 취약 등 낮은 경제성장률, 고임금, 고실업, 고간접비용 등의 구조적 취약점

- 연금·의료·교육 등 공공분야의 과도한 사회보장지출, 공기업 적자 보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등으로 공공지출 확대, 공공부채 지속 증가로 인한 이자 지불 부담으로 효과적인 경제정책 추진에 제약 초래

- 노조의 영향력으로 노동시장 경직, 기업주의 높은 사회보장 부담금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 저하

-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고용보호규정, 노동시간 및 임금 등 고용 조건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해하여 신규 노동력의 노동시장 진입과 기업주의 고용 증가 어려움 초래

○ 이탈리아 주요 경제 수치 경제 현황(2014년)

- GDP : 2조 1,488억 달러

- GDP성장률 : -0.4%

- 공공부채 : 2조 1,350억 달러 (GDP 대비 132%)

- 교역액 : 1조 5억 달러 (수출 5,287억 달러, 수입 4,718억 달러)

- 물가상승률 : 0.2%

- 실업률 : 12.8% ※ 자료출처: 코트라(KOTRA)

○ 한·이탈리아 경제통상 관계

- 한·이탈리아 양국은 세계 10위권 내외의 경제규모, 높은 대외교역 의존도, 대규모 경제권에 인접한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잠재력은 있으나,

- 양국 간 경제협력 잠재력에 비해 교역 및 투자 규모는 다소 저조한 편

-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1년도 38억불에서 2007년도 77억불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세계경제위기 등으로 2009년에는 63억불로 감소했다가 2010년에는 72억불, 2011년에는 84억불로 회복했으나 유로존 위기로 다시 감소하여 2012년 80억불로 감소. 2013년에는 85억불로 증가

- 한·이탈리아 간 주요교역 품목(2014년 기준)으로는 한국 ⇒ 이탈리아 승용차, 합성수지, 무선전화기, 선박 순위며, 이탈리아 ⇒ 한국 벨브, 가죽제 가방, 나프타, 직물제 의류 순이다. ※ 출처: 코트라(KOTRA)

○ 이탈리아 역사(略史)

♣ 이탈리아 역사(略史)

- 이탈리아의 역사는 서기전 7세기경 이 지역에 살았던 그리스인이나 에트루리아(Etruria)인의 세계까지 올라가지만, 로마에 의한 역사는 이탈리아반도의 통일 시기인 기원전 270년경부터임.
- 고대 로마제국은 대제국을 형성하면서 번영을 누렸으나, 395년 동서로 분열되었으며, 동로마제국의 멸망에 이어 476년 서로마제국도 멸망하였음. 그 뒤 중세 교황시대에는 동방무역으로 여러 도시가 번영했으나, '신대륙의 발견' 이후 16세기부터는 주위의 여러 세력에 의해 반도가 분열되어 경제적으로도 침체되었음.
- 그 후 1860년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되었고, 1871년 수도를 로마로 옮기게 되었음.
- 이탈리아 왕국은 체제상으로는 입헌군주제였으며, 제1차세계대전 후 사회주의 세력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항하는 세력이 등장, 1929년 무솔리니(Mussolini)에 의한 파시스트 독재 정권이 성립되었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스트 정권이 패함으로써 1946년 6월 총선이 실시되었으며, 새 헌법에 의한 공화제가 1948년 1월부터 출범하였고 1955년 12월 유엔에 가입했음.
- 1950년대까지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알려졌으나, 195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오늘날 서방 5대 선진국이라고 불릴 만큼 공업국가로 변모하였고, 2015년의 국민총생산은 2조 1443억 달러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4960달러임. 2015년의 무역은 수출 5214억 달러, 수입 4511억 달러를 보이고 있음.
- 문화적으로도 고대 이래 찬란한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도 음악과 미술을 비롯한 예술 분야에서는 선진적인 위치에 있음.

▶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이탈리아 전도



III 일정별 방문지 현황

1. 2017. 9. 18.(월) [1일차] [한국 ⇒ 이탈리아(로마)]

■ 세부일정(로마 도착부터는 이탈리아 현지시간 적용)

- 08 : 30 -- 구의회 출발
- 13 : 00 -- 인천공항 ⇄ 로마(30분 지연 출발) (아시아나 561편)
- 18 : 40 -- 로마 도착(한국시간 01:45) - 총 12시간 40분[시차 - 7시간]
- 20 : 00 -- 공항 ⇒ 식당 이동
- 21 : 00 -- 식사 후 로마 인근 **띠볼리(Tivoli)** 마을에 있는 **Victoria Terme Hotel** 호텔 이동

■ 참고사항(가이드 안내사항)

- 19일 일정 : 9.19(화) 오전-7:45 호텔 출발, 09:30 도로관리청 방문 예정, 오후 로마 ⇒ 피사로 이동(3시간)
- 여행 시 주의사항 : 분실물 주의(특히 식당, 사진 촬영 요청, 지도 문의), 화장실(공중화장실의 대부분은 유료화장실)이용 등
- 도시 야경 : 프랑스는 전기 생산시설이 거의 없어 전기의 대부분을 프랑스에서 수입함(전력 부족으로 도시가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임.)

2. 2017. 9. 19.(화) [2일차] [로마 ⇒ 피사]

■ 이탈리아 도로관리청(ANAS) 방문

■ 방문목적

이탈리아 도로관리체계 및 각 도로간 연계 교통체계, 관광객 유치 관련 도로 활용책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수정책은 지방도 유지·관리에 적용

○ 세부일정

- 07 : 30 -- 숙소에서 ANAS로 출발
- 09 : 30 -- ANAS 방문
- 09:30 ~ 11:00 -- ANAS 현황 브리핑 및 관계자 면담 및 관련 시설 시찰

○ 이태리 도로관리청(ANAS.s.p.A) 현황

이탈리아 도로관리청(ANAS.s.p.A)	
위 치	○ Via Monzambano, 10, 00185 Roma ○ +39 06 44461
소 개	○ 이탈리아의 도로시스템 관리를 위해 설립된 100% 정부 지분출자 기관 ○ 자본금은 약 22억 7천만 유로(약 3조원), 직원수 6,100여명 ○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총 26,800km ○ 주요도로(무료 고속도로, 국도) 관리를 직접책임지면 민간회사에 대해 유료 고속도로의 운영 허가권을 부여함
연 령	○ 1928년 설립(100% 정부 지분출자기관)
주요업무	○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관리 및 유지·보수 ○ 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점진적 개선 ○ 이용자들을 위한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교통관련 법률 이행 ○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 이행 ○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연구 및 실험 참여
특 징	○ 이탈리아의 주요 도로는 최상위 도로인 고속도로(유료 도로)부터 총 7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고속국도와 국도를 ANAS라는 기관이 통합하여 관리하고 각 도로간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에 노력

○ 방문 내용

⇒ 브리핑 전 상황실 방문 중 ANAS 기능 설명 내용

- 각주마다 교통상황실이 있으며 그 중 ANAS는 총괄청이며,
- 각 지청의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대처상황 전개·지휘
- 상황실의 모니터는 50여개로 주요지점 확인, 터널관리(센서 확인), 25천km의 도로 관리 및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1500여개 센서 관리, 감시차량활동 현장 확인, 색깔별로 도로상황 확인 등

⇒ ANAS 영상자료 시청(10:00 ~ 10:05)



⇒ ANAS 관계자 인터뷰

☞ 중앙종합통제소 국제관계담당자(LEONARDO ANNESE) 인터뷰

- 1928년 창설, 국가가 통제하지만 독자적 운영, 국도 직접 건설 및 운영. 고속도로 건설장면, 인공위성 활용 상황실 운영 현황, ANAS 주요기능, 향후 31,000km 정도 관리예상, 지방도 ⇒ 국도 전환 추진, 로마 외곽도로관리 68km와 공항도로 관리, 경제부처에 소속되어있지만, 국토부와 협력, 소속직원 6,000여명(본부 280여명), 도로 보수·관리 집중, 무료(고속)도로만을 관리, 다리 15천개, 터널 1,200개 관리, 외국과 협력사업 추진(기술 자문 및 교류, 아시아에는 추진국이 없음).

☞ 도로건설책임전문가(GAETANO COLLETTA)

- 도로건설 난제 많음, 도로건설주체-정부 및 주정부(건설부 주관), 정부와 지자체간 협약(승인 등)에 의해 도로 건설(장기간 소요), 도로 건설사 고려사항이 많음(유적 및 자연경관 고려)에 따라 장기간 소요, 계획이 확정되면 비용 분석, 많은 유적으로 도로건설 난관 많음, 2차대전 후에 난개발로 유적 훼손 후 엄격히 법으로 난개발 규제, 공사 중 유적지 발견 시 원점에서 재검토(위나 아래로 갈 수 없음- 문화유적 보호에 국가적으로 강력한 법규로 규제), 예) 3번 지하철(로마 중심 통과) 건설 시 유적 발견으로 역 자체를 박물관으로 전환으로 해결, 사전에 유적 유무를 철저히 확인(문화부 개입), 철저한 분석으로 대안 제시, 환경문제는 절대적인 준비사항, 환경분야에는 시민들 의견 반영, 모든 분야를 만족시킨 뒤 공사 진행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 질문1(김순길의원) : 도로에 설치된 CCTV에 범죄행위가 포착될 시 경찰 출동 시간과 대체 방법은?
⇒ 약 10분 ~ 15분 정도 소요됨. 상황판단 후 관련부서에서 실제 출동 해결
- ▷ 질문2(류상호의원) : ANAS의 예산 규모는?
⇒ 약 22억 유로, 도로 관련 별도의 수입은 없으며 정부 예산으로만 운영
- ▷ 질문3(이기수의의원) : 한국의 도로 건설 기술력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가? 한국은 지하 25m까지를 사유지로 인정, 이탈리아는?
⇒ 구체적인 확인은 못했으나, 객관적인 한국 기술력 인정, 지하 토지 소유권 없음
- ▷ 질문2(장숙이의의원) : 최근 개설된 도로의 공사기간 정도는?
⇒ 상황과 여건에 따라 편차가 많으나 기본적으로 4~5년 소요

○ 시사점

☞ 이탈리아에서는 정부에서 도로건설 등 국가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간 협업, 철저한 유적보호 정책, 철저한 사전준비 이행, 건설 도중에라도 문화유적 보호를 위해 건설 중단,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시민들 의견 전적으로 반영, 도로공사와 관련한 모든 의견들을 수렴·반영 후 공사를 시행함.

☞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기간사업 추진 시 사전 절차나 심도 있는 국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배제하고 공사를 강행하면서 공사 중단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음.

☞ 이러한 부작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모든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국민과 충분한 소통 후 관련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시행함으로써 공기를 단축하고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피사(Pisa) 방문

○ 세부일정

- 13 : 15 -- 피사(Pisa)로 출발
- 18 : 40 -- 피사도착(피사의 사탑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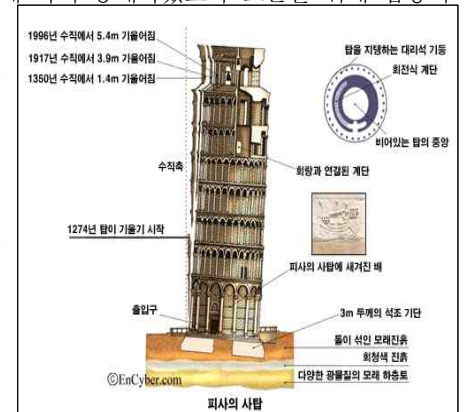
○ 피사(Pisa) - 토스카나주에 위치

- **피사**는 11세기 말에 제노바·베네치아와 대립하는 강력한 해상공화국으로서 번영하였음. 문예의 중심지로서 번창하여, 갈릴레이도 이곳 대학에서 공부
- 이탈리아 로마네스크 건축을 대표하는 주교좌 성당(대성당). 부속해서 <피사의 사탑>이



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종루와 세례당이 있음. 피사의 탑으로 잘 알려진 종루는 1173년 착공되어 1372년까지 3차례에 걸쳐 약 200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1173년에서 1178년 사이에 진행된 1차 공사 이후 지반 토질의 불균형으로 인한 기울어짐이 발견됨. 그 뒤 2차 공사에서 이를 수정하여 다시 건설하였으나 기울는 현상은 계속됨. 1990년 이탈리아 정부는 경사각을 수정하기

위한 보수공사를 착수하여 10년에 걸쳐 보수작업을 진행한 결과로 기울어짐 현상은 5.5°에서 멈춘 상태임. 2001년 6월 일만에 다시 공개하였으나 보존을 위해 입장객의 수를 제한하고 있음. 갈릴레이는 이곳에서 무게가 다른 두개의 공(1파운드, 10파운드)을 떨어뜨리는 낙하실험을 통해 지표면 위의 같은 높이에서 자유 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질량과 무관하게 동시에 떨어진다는 낙체법칙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는 일화(逸話)가 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실험은 1586년 네덜란드의 수학자·물리학자인 시몬 스테빈(Simon Stevin)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2017. 9. 20.(수) [3일차] [피사 ⇒ 친퀘테레 ⇒ 밀라노]

■ 친퀘테레

○ 세부일정

- 08 : 00 -- 숙소에서 라스페치아(La Spezia)역으로 출발
- 09 : 25 -- 마나롤라(Manarola)행 기차 탑승(8분 소요)

○ 이탈리아 친퀘테레 - 절벽으로 연결된 다섯 개의 해변 마을

- 이탈리아 북서부 라스페치아(La Spezia)지방의 친퀘테레는 '5개의 마을'이라는 뜻을 지닌 지역임. 실제 5개의 각기 다른 개성의 해변 마을은 파스텔톤의 집과 좁은 골목길로 형성됨. 마을은 절벽 위의 좁은 길로 연결 돼 있을 뿐 자동차는 쉽게 닿지 못함. 마을 사이로는 해변 절벽을 따라 유일하게 열차 운행.

- 이탈리아 국립공원인 친퀘테레 마을은 리오마지오레,



마나롤라, 코니글리아, 베르나차, 몬테로소 알 마레 등 다섯 곳이며, 친퀘테레의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은 10여km가 넘음. 유네스코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함.

※ 친퀘테레 지도



○ 시사점

☞ 친퀘테레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관광자원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거환경 인프라의 구축이 전무하여 상당한 불편을 안고 살아감. 이는 획일적인 도시계획 보다는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민적 의식수준이 높음에서 비롯됨.

☞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도시계획사업 추진 시 획일적인 개발보다는 보존가치를 지닌 부분에 대하여는 보존 등을 위해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추진함이 바람직함.



■ 밀라노(Milano)

○ 세부일정

- 16 : 30 -- 밀라노 도착

○ 밀라노 - 두오모(Duomo)성당, 스칼라극장(La Scala Theater Museum)

두오모(Duomo) 성당은 밀라노의 중심에 있으며 135개의 첨탑과 3,159개의 조각상을 지니고 있는 엄청난 규모와 고딕 양식의 건축물에서 이탈리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성당임. 밀라노의 대주교였던 안토니오 디 사루초와 그의 사촌이자 영주였던 지안 갈레아초 비스콘티에 의해 건축됨. 건축 초기에는 당시 유럽의 건축 양식을 주도하던 프랑스 기술자를 섭외했기에 이탈리아보다는 프랑스 스타일의 고딕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외관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마을인 칸돌리아에서 생산하는 대리석으로 장식했는데, 특유의 연한 분홍 색상이 여전히 빛을 받해 날씨가 좋으면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성당임.



스칼라 극장(La Scala Theater Museum)은 스칼라 광장에 있다. 원래 1778년에 세워진 건물이었으나, 제 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되고 현존 건물은 1946년 오페라 애호가들의 기부금으로 재건된 것임. 19세기 부터 로시니, 도니체티, 벨리니, 베르디, 푸치니 등 거장들의 작품이 초연된 오페라의 전당임.



4. 2017. 9. 21.(목) [4일차] [밀라노 ⇒ 가르다호수 ⇒ 베네치아]

■ 가르다호수(Lago di Garda)

○ 세부일정

- 08 : 00 -- 밀라노에서 가르다호수로 출발
- 10 : 40 -- 가르다호수 도착

○ 가르다호수 소개

- 가르다호수는 둘레가 150km나 되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호수임. 이탈리아 북쪽에서 위치하며 밀라노와 베네치아 사이에 있음. 고산 지대에 있으며 빙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빙하기 말부터 생겨난 것임. 베로나 주와 남동쪽으로, 트렌토 주와 북쪽으로 접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중요한 관광자원 중의 하나임.



■ 베네치아(Venezia)

○ 세부일정

- 11 : 10 -- 가르다호수에서 베네치아로 출발
- 13 : 00 -- 베네치아 외곽 도착
- 13 : 40 -- 본섬 행 여객선 승선
- 14 : 00 -- 본섬 도착

○ 베네치아 소개

- 영어로는 베니스(Venice)라고 하며, 베네치아만(灣) 안쪽의 석호 위에 흩어져 있는 118개의 섬들이 약 400개의 다리로 이어져 있음. 섬과 섬 사이의 수로가 중요한 교통로가 되어 독특한 시가지를 이루며, 흔히 ‘물의 도시’ 라고 부른다. 대안의 메스테르와는 철교·다리로 연결되어 있으나, 철도역은 철교가 와 닿는 섬 어귀에 있고, 다리를 왕래하는 자동차도 시내에는 들어올 수 없음. 시가지는 본래 석호의 사주(砂洲)였던 곳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근래 지반침하와 석호의 오염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베네치아 지도



- 베네치아의 역사는, 567년 이민족에 쫓긴 롬바르디아의 피난민이 만(灣) 기슭에 마을을 만든 데서 시작되며, 10세기 말에는 동부지중해 지역과의 무역으로 얻은 경제적 변영으로 이탈리아의 자유도시들 중에서 가장 부강한 도시로 성장하였음.

- S자형의 대운하가 시가지 중앙을 관통하고, 출구 쪽의 운하 기슭에 장대한 산마르코 광장(廣場)이 자리한 기본적인 도시형태는 산마르코 대성당을 비롯한 교회·궁전 등과 더불어 13세기에 이미 완성됨. 산마르코 대성당의 5개의 원형 지붕에서 볼 수 있듯이, 베네치아의 몇몇 건축물에서는 동방의 영향을 반영하는 비잔틴풍(風) 또는 오리엔트풍의 건축양식을 볼 수 있음.

- 19세기 후반부터 이탈리아 경제의 중심인 북부평야를 배후지로 하는 항구도시로 발전하였으며, 20세기에 들어와 대안에 공업항(工業港)으로 발전함.

- 유리세공업(細工業)으로 유명한 무라노섬, 국제영화제 개최지 및 해수욕장, 카지노 등으로 유명한 리도 등도 베네치아시에 포함됨. 베네치아의 구시가지는 지난날의 공화국 번영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고, 산마르코대성당·두칼레궁전·아카데미아미술관 등은 미술·건축예술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음. 베네치아는 로마·피렌체와 더불어 이탈리아의 중요한 관광지이며, 대학 및 시(市) 동부의 현대미술전시장에서의 국제비엔날레, 리도의 국제영화제, 페니체극장에서의 음악 등 문화활동도 활발함.

- 주요 명소인 **두칼레 궁전**은 베네치아 도제의 공식적인 주거지로 9세기에 건설되었으며, 현재의 건물은 대부분 1309년부터 1424년의 기간에 걸쳐



지어진 것임. 고딕 양식의 건물로, 조형미는 베네치아에서 가장 뛰어나.

산마르코 대성당에 면한 쪽에 '문서의 문(Porta della Carta)'이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에 정부의 포고문이나 법령 등을 부착했음. 문 위에 보이는 날개가 있는 사자상은 베네치아의 상징물임. 두칼레 궁전의 '10인 평의회의 방'에는 베네치아의 주요 역사를 그린 그림, 원수 76인의 초상화 등이 있음.

- 산마르코 성당(Basilica di San Marco)²⁾은 2명의 상인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져온 성마르코 유골의 납골당(納骨堂)으로 세워진 것(829~832)임.

그 후 성마르코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수호성인(守護聖人)이 되었으며, 11세기 말에 현재의 산마르코성당이 재건되었음.

- 산마르코성당의 건축양식은 비잔틴 건축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유명하며, 그리스 십자형(十字形)의 바실리카로 다섯개의 돔을 받치고 있으며, 파꽃형의 아치와 고딕풍의 천개가 이어진 정면(파사드)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대리석 건축으로 황금빛의 배경을 지닌 모자이크 벽화로 장식되어 있음.



- 산마르코성당이 재건되면서부터 도제(총독)를 비롯한 베네치아 시민(市民)은 동방을 침략할 때마다 이 건축을 장식할 여러 가지 물건과 조상(彫像)·부조(浮彫) 등을 가져오는 습관이 생겨 이 건물은 그런 것들로 장식되었음.

2) 자료출처 : 두산백과사전

예컨대 정면 위의 회랑(回廊)에 놓여 있는 네 개의 브론즈 말(높이 1.6m)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것으로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비잔티움(콘스탄티노플)에 옮겨놓은 것을 1204년에 도제가 베네치아로 가져온 것임. 또한 외부와 내부를 뒤덮듯 장식된 모자이크 벽화는 12~17세기에 계속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미술사적(美術史的)으로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 받음.

5. 2017. 9. 22.(금) [5일차] 【 베네치아 ⇒ 피렌체 】

■ 피렌체(Firenze)

○ 세부일정

- 08 : 00 -- 베네치아에서 피렌체로 출발
- 09 : 40 -- 볼로냐휴게소 도착
- 11 : 00 -- 피렌체 도착
- 14 : 00 -- 토스카나주협동조합 방문

○ 피렌체 소개

- 피렌체[Firenze]는 이탈리아 중부지방 토스카나주(州)의 주도(州都)임. 인구는 약37만명이며, 교통의 요지임.

- 상공업이 성하며 식품·의료·가구 등의 일용품공업 외에 자동차부품·자전거·냉장고·농업기계 등의 제조공업과 전통적으로 이름높은 가죽제품공업이 이루어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중심지로서 13~15세기의 예술작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시정(市政)의 중심이었던 시뇨리아 궁전을 비롯하여, 지금은 국립미술관·도서관·고문서관(古文書館)이 들어 있는 우피치 궁전, 독특한 고딕 양식의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교회, 조토의 벽화 등으로 유명한 산타 크로체 교회, 도나텔로 등의 작품으로 알려진 산 로렌초 교회 등이 있는 시가지 중심부는 거리 전체가 박물관과도 같음. 국립미술관, 안젤리코의 벽화로 유명한 산마르코 미술관 등이 있으며,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종합대학을 비롯하여 많은 문화기관·연구기관이 모여 있음.

- 세계유산목록에 등록되어 있으며, 영어로는 플로렌스(Florence)임.

- 시뇨리아 광장은 옛날에는 피렌체 정치의 중심지였던 곳이지만 현재는



카페테라스가 있는 휴게 장소임.
그리고 조국의 아버지 라고 불리는 코시모 데메디치의 기마상이 있어, 일대는 언제나 젊은이들로 붐비며, 이 광장 중앙에는 한때 피렌체를 지배했던 수도승 사보나롤라의 처형지임을 밝히는 화강암이 서 있음.

- 베키오 다리는 아르노 강 위의 다리 중에서 가장 오래 된 다리로 2 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위층은 귀족이나 부자들이, 아래층은 서민들이 이용함. 지금은 다리 위가 아케이드로 되어있으며, 보석, 귀금속을 중심으로 한 선물가게가 촘촘히 들어차 있음.



- 두오모성당은 피렌체의 상징으로 높이 106m, 이 대성원은 13세기부터 건설이 시작되어 몇 차례나 개축한 끝에 본관은 1471년에 완성됨. 그 후 정면부분은 19세기에 재건됨. 성당 중앙의 합창대에서 올라다보면 브루넬레스키의 걸작 대원개 (Cupola)가 보인다. 이곳에 그려진 프레스코화가 미켈란젤로의 불후의 명작인 “최후의 심판”임. 미켈란젤로의 미완의 대작 “피에타” 는 정면 왼쪽 뒤에 있다. 성당내 왼쪽의 회랑에 있는 입구에서 463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대원개의 옥상으로 나가 지상 106m 높이에서 시내를 조망할 수 있음.



■ 협동조합(LEGACOOP) 연맹 방문

○ 세부일정

- 14 : 00 ~ 15 :30 — 토스카나주 협동조합 방문

○ 이탈리아협동조합연맹(LEGACOOP) 개요

- LEGACOOP의 본부는 로마에 있으며, 각 지역별 지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 환경 속에서 협동조합의 보호와 지원활동에 주력함.
- 기능은 새로운 조합의 설립을 장려하고 도와주며, 협동조합 사업 아이템들을 제공하고 법적 설립요건들을 갖추는데 도움 제공
- 모든 협동조합들이 수익의 3%를 협동기금으로 적립하면, EGACOOP에서 관리하며 새로운 협동조합 또는 자금이 필요한 협동조합들이 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금 역할 수행
-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게끔 협동조합 교육 실시
- 협동조합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화할 수 있는 연구, 일반기업과 차이에 관한 연구
- 건설 및 도시계획, 사회정치, 국제교류 등



▷ 레가 코프(Lega Coop)의 역사

- 레가 코프는 1886년에 설립되었으며, 1920~1940년대 파시즘 시절에 활동을 멈췄고, 1945년 8월28일 전쟁이 끝나자 재결성되었음.
 - 1991년 사회적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면서 협동조합의 상호부조 방식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 해 회장 선출이 정당추천이 아닌 산하 협동조합의 의지로 선출되어 정치로부터 독립을 쟁취함.
 - 1992년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출자조합원제도(담보로서 이자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제도)가 인정되었고, 협동조합 개발 기금(코프 펀드)이 창설됨.
- 모든 협동조합은 그 잉여의 3%를 기금으로 내는 것을 의무로 하였으며, 이 기금은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과 투자 조성 등 협동조합 발전에 사용됨.

▷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전국 조직

- 이탈리아에는 약 7만7000개의 협동조합이 있다(2003년). 약 70만 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이탈리아의 전 노동력의 약 2%, 민간 고용 노동의 약 4% 차지하고, 협동조합 중앙회 조직이 존재하는데, 이탈리아 협동조합연맹인 레가 코프(Lega Coop), 협동조합연합(CCI, Confcooperative), 협동조합총연합(AGCI), 이탈리아 협동조합연합(UNCI)이 있으며, 이탈리아 전체 협동조합의 약 50%가 이들에 소속됨.

○ 방문 내용

⇒ 협동조합 관계자들과 인터뷰

- 피렌체 거주 약 400명, 토스카나주협동조합(공기업), 건강 복지분야, 일자리 제공, 1800년에 창설, 2차대전 후 협동조합을 통하여 경제활성화가 이뤄졌음.
- 1,000여개정도의 협동조합이 있으며, 연간 90억유로 경제적 효과 창출. 45,000여명에 일자리 제공, 이 중 55%는 여성이며, 80~85%가 정규직임.
- coop상호의 협동조합 운영, 생산자가 직접 운영, 3단계 운영, 도시 외곽에는 대규모, 도시 변두리에는 중기업 유치, 특히 볼로냐에서 활성화 됨.

- 운반. 농업. 서비스 협동조합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컨트롤이 핵심적인 역할, 교육분야 20%, 농업분야 10%, 운송 8~9%임.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질문1(홍길식의원) : 공동 생산체계인지와, 농산물의 가격체계는?

- ⇒ 생산과 유통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형성되어 있음.
- ⇒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가격조절이 가능하며, 생산량이 초과하는 경우 제3국 등에 무상으로 제공, 올해 포도생산량은 목표량의 60% 예상

▷ 질문2(김용일 위원장) :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 ⇒ 관련하여 토의함.

○ 시사점

- ☞ 협동조합의 활성화로 일자리창출 및 유통체계의 확립으로 소비자에게 값싸고 질 좋은 식료품 제공.
- 특히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55% 이상)으로 여성들의 사회진출 기여.
- ☞ 주요 거점마다 협동조합매장이 설치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쉽게 접근 가능.
- ☞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자국차원을 넘어 글로벌협동조합을 구상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글로벌협동조합 시대에 대비하여야 함.





■ 시뇨리아 광장(Piazza della Signoria)

○ 세부일정

- 15 : 50 -- 시뇨리아 광장 도착

○ 시뇨리아 광장(Piazza della Signoria) 개요

- 베키오 궁전과 우피치 미술관이 접해 있는 광장으로 13~14세기에 조성되었으며, 중세 이후 지금까지 시청사로 쓰이고 있는 베키오 궁전과 더불어 역사 깊은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음.



- 고딕 양식의 건물인 베키오 궁전은 높이 94m의 종탑이 솟아있고, 2층의 대회의장 500인 홀'에는 화려한 벽화가 있는데 코시모 1세의 승전을 그린 프레스코화로, 조르조 바사리(Giorgio Vasari)의 작품임.

- 베키오 궁전 옆에는 피렌체를 대표하는 미술관인 우피치 미술관이 있음. 광장에서 도보 3분 거리에 바르젤로 미술관도 있음. 19세기까지는 감옥이었던 건물에 들어선 미술관으로, 도나텔로의 <성 게오르기우스>와 미켈란젤로의 <바쿠스> 등 르네상스 걸작들이 전시되어 있음.

6. 2017. 9. 23.(토) [6일차] [피렌체 ⇒ 산 지미냐노 ⇒ 오르비에토 ⇒ 로마]

■ 산 지미냐노(San Gimignano)

○ 세부일정

- 08 : 30 -- 산 지미냐노로 출발
- 10 : 00 -- 산 지미냐노 도착
- 11 : 50 -- 오르비에토로 출발

○ 산지미냐노[San Gimignano] 개요

-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주 중부 시에나 현 북서쪽의 도시. 농촌 지대의 중심지로 양조·금속공업 등이 있음. 12~14세기에 번창했던 곳으로 현재는 14개 탑과 궁전·교회 등이 남아 있음. 199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

- 두오모 광장·포폴로궁전은

중세 도시인 14세기와 15세기 이탈리아 예술이 낳은 수많은 걸작을 원래 모습 그대로의 건축물 안에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소유하고 있음. 산 지미냐노라는 도시는 그 전체가 유네스코에 의해 보호 받고 있는데, 중세 문명에 대해 증언해주는 값진 유산이기 때문임.



-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 중 하나가 팔라초 델 포폴로임. 1288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아마 위대한 건축가 아르놀포 디 캄비오가 설계했음. 이곳은 도시 의회가 모임을 갖고 '포테스타'(행정 장관)가 법률을 집행하던 곳임. 내부의 안뜰 벽에는 여러 다른 시기에 걸친 의회 의원들의 문장(紋章)이 전시되어 있음. 궁전 옆에는 웅장한 '로지아 델 포폴로'가 있는데, 이는 1347년에 지어졌으며, 포테스타가 도시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충성의 맹세를 거행하던 곳이었음.



■ 오르비에토(Orvieto)

○ 세부일정

- 15 : 00 -- 오르비에토 도오모성당 도착
- 16 : 40 -- 로마로 이동
- 18 : 00 -- 로마 도착

○ 오르비에토(Orvieto) 개요

-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 지방 언덕 위의 도시. 에트루스크 시대에 생겼고 교황 직할지가 되었음.

- 슬로우 시티 운동의 발상지인 오르비에토는 로마에서 북서쪽으로 96km



떨어진 팔리아강(江)과 키아나강(江)의 합류점에 있으며, 해발고도 195m의 바위산 위에 위치하고 케이블카로 오르내림. 주변의 비옥한 농업지대의 유통·산업·관광의 중심지이다. 부근의 농촌에서는 포도가 많이 생산되며, '오르비에토'라는 이름으로 생산되는 백포도주가 유명함. 철도와 도로를 통해 로마, 피렌체와 연결됨.



- 오르비에토의 전체 주민은 2만여 명 밖에 되지 않으나, 1년에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200만 명에 달함.

- 이 작은 도시는 주문하면 즉시 완성되어 나오는 식품들을 일컫는 '패스트푸드'의 반대말인 '슬로푸드' 운동이 처음 생겨난 곳임. 슬로푸드 운동의 발상지답게 오르비에토에는 대형마트와 즉석 식품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이 없으며, 대신에 자그마한 상점에서 깨끗하고 신선한 먹을거리를 구입할 수 있음. 또한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상공인이 대를 이어가며 가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것들은 곧 지역 경제로 고스란히 환원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슬로푸드의 이념과 철학은 도시를 바꾸었으며, 일상의 스트레스가 없애기 위해 노력함. 그래서 오르비에토는 대기오염과 소음공

해를 줄이기 위해 마을 광장은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대신 마을 밖에 주차장을 만들고 방문객이 차를 두고 시내로 들어오게 함.

- 이에 그치지 않고 오르비에토는 슬로푸드 운동을 확대시켜 1999년 이탈리아의 다른 세 도시와 함께 세계 최초로 ‘치타슬로(cittaslow)’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치타슬로는 '유유자적인 도시, 풍요로운 마을'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로, 이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슬로시티임. 이 운동은 기본적으로 ‘느리게 살자’는 뜻을 담고 있으며, 빠른 속도와 생산성만을 강요하는 빠른 사회, 즉 ‘빨리 그리고 많이’에서 벗어나 자연·환경·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여유 있고 즐겁게 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음.

- 이와 더불어 지역의 전통을 보존하고 지역의 주민이 중심이 되며 생태적으로 건전한, 이른바 느낌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함.

- 슬로시티는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보존함으로써 지역을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려는 운동임. 그래서 지역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이용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방문객의 증가로 지역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이 과정에서 슬로시티 운동은 자연스럽게 관광 산업으로 연결되어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지키면서 관광객도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됨.

♣ 슬로시티 선언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흥미를 갖는 도시, 훌륭한 극장, 가게, 카페, 여관, 사적, 그리고 풍광이 훼손되지 않는 도시, 전통 장인의 기술이 살아 있고 현지의 제철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도시, 건강한 음식, 건강한 생활, 즐거운 삶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추구한다.

- 오늘날 세계의 많은 도시가 슬로시티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나, 희망한다고 해서 모든 도시가 슬로시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슬로시티 인구는 5만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이 있음. 현재 슬로시티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인구가 5만 명 이하, 도시와 주변 환경을 고려한 환경정책 실시, 유기농 식품의 생산과 소비, 전통 음식과 문화 보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 사항으로 친환경적 에너지 개발, 차량 통행 제한 및 자전거 이용, 경적 등 소음 줄이기, 나무 심기, 패스트푸드 추방, 문화유산 지키기 등을 실천해야함.

- 우리나라의 슬로우시티는 전남 4개 지역(담양군 창평면 삼지천 마을, 장흥군 유치면, 완도군 청산도, 신안군 중도)을 포함하여 경남 하동군 악양면(차재배지로서 세계 최초), 충남 예산군 대흥면, 전주 한옥마을, 남양주시 조안면, 청송군 부동·파천면, 상주시 함창·이안·공검면,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충북 제천시 수산면 등 12곳이 있음.



○ 시사점

☞ 이탈리아에서는 인구 2만명의 작은 도시 ‘오르비에토’를 슬로우시티로 육성하여 연간 200만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모시켰음. 이는 소도시의 운동을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이 적극 호응하여 일궈낸 성과임.

- 대형 마트의 진입을 규제하고, 친 환경과 소음방지를 위해 자동차의 진입을 막았으며(일반 관광객들은 케도열차를 이용하여 ‘오르비에토’에 도착하여 셔틀버스로 관광지 접근), 도시 전체의 기반시설인 도로는 수 백년 전에 설치한 도로(작은 돌로 바닥을 깔았음)를 유지함으로써 고풍스러움과 더불어 자동차 운행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동차의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여 진입을 방해함.

☞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 획일적인 도시개발을 지양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를 개발하여 독창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입안 시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음.

7. 2017. 9. 24.(일) [7일차] [로마 ⇒ 소렌토 ⇒ 폼페이 ⇒ 나폴리 ⇒ 로마]

■ 소렌토(Sorrento)

○ 세부일정

- 07 : 40 -- 소렌토로 출발
- 11 : 00 -- 소렌토 도착
- 11 : 30 -- 폼페이유적지로 이동

○ 소렌토(Sorrento) 개요

-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 주 북부 나폴리 현 남부의 휴양·관광 도시. 나폴리 만 남쪽의 소렌토 반도 북쪽에 있음. 인구 1만 7000명. 해안은 대·소 둘로 나누어져 있음. 포도주·올리브유가 많이 나는 관광 휴양지. 민요 ‘돌아오라 소렌토’로 잘 알려짐.



■ 폼페이(pompeii)

○ 세부일정

- 12 : 20 -- 폼페이유적지 도착
- 14 : 30 -- 나폴리항으로 출발

○ 폼페이(pompeii) 개요

-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 주 북부 나폴리 현 남부의 휴양·관광 도시.



서기79년 8월 24일 정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연안에 우뚝 솟아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돌연 폭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남. 거대한 폭발과 함께 검은 구름이 분출되면서 화산이 분화하기 시작했고, 화산은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화산암을 뿜어내면서 인근 도시로 쏟아져 내림.

- 하늘에서 비오듯 쏟아져내리는 엄청난 양의 흙과 돌은 순식간에 폼페이를 뒤덮어버렸으며, 운 좋게 도망친 사람도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늦은 사람들은 지상을 뒤덮은 고온 가스와 열구름에 질식사하거나 뜨거운 열에 타서 사망함.
- 이 폭발로 당시 폼페이 인구의 약 10퍼센트인 약 2,000명이 사망했으며,

당시 폼페이는 B.C. 89년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간 이후 철저히 로마화가 진행된 도시로 로마의 상류계급이 별장을 건설했던 휴양지이기도함. 화산이 폭발하기 전인 63년 2월에 대지진이 일어났지만 도시는 착실하게 재건되고 있었으나 그로부터 16년 뒤 도시 전체는 화산재 밑에 묻혀버렸음.

- 폼페이가 다시 역사에 등장한 것은 1592년이였다. 폼페이 위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물과 회화 작품들이 발견되었으며, 1861년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폼페이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그 후에도 폼페이 발굴은 계속되어 현재는 도시의 약 5분의 4가 모습을 드러낸 상태임.



■ 나폴리항(Napoli)

○ 세부일정

- 15 : 00 -- 나폴리항 도착
- 16 : 00 -- 로마로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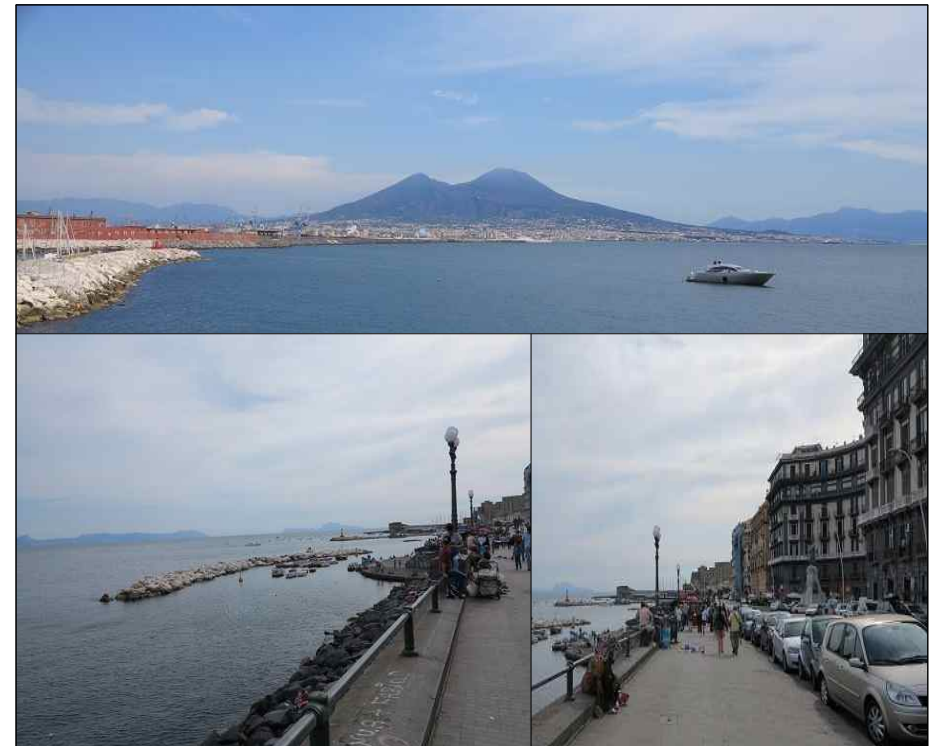
○ 나폴리(Napoli) 개요

- 로마·밀라노 다음가는 이탈리아 제3의 도시이며,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최저 평균 기온이 8℃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연교차가 적은 점에서 이탈리아의 도시 중 기후가 가장 좋음. 여름은 건조하나 사실상의 건기(乾期)는 1개월 미만으로 농업용수 상태도 좋은 편임.

- 나폴리는 그 이름이 말하여 주듯 그리스의 식민도시 네아폴리스가 그 기원이나, 화산분화를 피해 온 주민들에 의하여 건설된 것으로 짐작하고 있음.

- 18세기 말 부르봉 왕조 지배하의 나폴리는 인구 40만을 헤아려 이탈리아반도 최대의 도시였으며, 나폴리만에 면한 소도시들은 나폴리의 위성도시 성격을 띠고 있으며, 동시에 활발한 어항, 마카로니 생산의 중심지, 카메오 등 조개세공의 산지로서 유명함.

- 또한 1224년에 창설된 종합대학과 동양연구대학, 1737년 이래의 산카를로 가극장(歌劇場) 등이 있어 학예중심지로도 유명하며, 다. 박물관으로는 BC 79년 베수비오의 화산재로 매몰되었던 부근의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 두 도시의 귀중한 고고학적 유물이 보존되어 있고, 이밖에 해양박물관, 유럽 유수의 수족관(水族館), 육·해군기지, 음악학교 등이 있음.



8. 2017. 9. 25.(월) [8일차] 【 로마 ⇒ 트레비분수 ⇒ 콜로세움 ⇒

바티칸시국 ⇒ 한국 】

■ 트레비분수(Trevi Fountain)

○ 세부일정

- 08 : 10 -- 트레비분수로 이동
- 09 : 10 -- 트레비분수 도착
- 10 : 30 -- 콜로세움으로 이동

○ 트레비분수(Trevi Fountain) 개요

- 트레비분수는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것으로는 예술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는 것은 오랜 전통으로 남아있음. 이 분수에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거나 언젠가 다시 로마에 오게 된다고 믿는 전통이 있음.



오른손에 동전 세 개를 들고 왼쪽 어깨 너머로 던지면 행운이 온다는 말이 있으며, 매일 3,000유로 정도가 트레비 분수대 바닥에 쌓이는데,

로마 시에서는 매일 밤 이 동전을 수거하여 로마 내 문화재 복원과 보호에 쓰고 있음.



■ 콜로세움(Colosseum)

○ 세부일정

- 11 : 50 -- 콜로세움 도착
- 13 : 30 -- 바티칸시국으로 이동

○ 콜로세움(Colosseum) 개요

- 로마 콜로세움의 식 명칭은 '플라비우스원형경기장'이라고 한다. 플라비우스 왕조 때 세워진 것으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착공하여 80년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 때에 완성하였다. 본래는 비공식 이름이었던 콜로세움(Colosseum)의 유래에 대해서는 원형경기장 근처에 있던 네로 황제의 거대한 청동상(Colossus Neronis)과 명칭이 혼동되었다는 설과 '거대하다'는 뜻의 이탈리아어 콜로살레(Colosale)와 어원이 같다는 설이 있는데 중세에는 그 자체가 '거대한 건축물'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했다. 글라디아토르(劍闘士)의 시합과 맹수연기(猛獸演技) 등이 시행되었으며, 그리스도교 박해 시대에는 신도들을 학살하는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피지배계층의 관점이나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다소 잔인한 측면이 있으나 고대 로마 시민들에게 원형 경기장은 경기를 보며 일체감을 느끼고 그 내용을 즐기는 하나의 공공 오락시설이었음.



- 한편, 로마 정치가들에게 원형경기장은 시민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화합을 도모하며 때로는 로마나 귀족의 권위에 불복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보복을 암시하는 공간이었음. 직경의 긴 쪽은 188m, 짧은 쪽은 156m, 둘레는 527m의 타원형이고, 외벽(外壁)은 높이 48m로 4층이며, 하단으로부터 도리스식(式) · 이오니아식 · 코린트식의 원주(圓柱)가 아치를 끼고 늘어서 있으며, 내부는 약 5만 명을 수용하는 계단식 관람석이 방사상(放射狀)으로 설치되어 있음.



■ 바티칸시국(Stato della Citta del Vaticano)

○ 세부일정

- 14 : 00 - 바티칸시국 도착
- 13 : 30 - 성베드로성당 이동
- 21 : 40 - 탑승 수속
- 22 : 50 - 이륙(인천공항 - 8,974km)
- 09 : 10 - 인천공항 도착(10시간 소요) -- 서울 시간 16 : 10

○ 바티칸시국(Stato della Citta del Vaticano) 개요

- **바티칸시국**은 모든 것이 종교적, 예술적, 세계 최소의 독립국이다. 1377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1세가 아비뇽 유배에서 풀려난 뒤로부터 교황의 주거지가 되었다. 예배당, 거실, 집회장 등 1400여 개의 방이 있는 드넓은 궁전이지만 교황청이나 교황이 쓰는 방은 극히 일부이다. 그 밖의 대부분은 바티칸 박물관으로 총칭되는 20여 개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으로 사용되며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다. 산 피에트로 사원과 함께 확장된 건물로 브라만테,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베르니니 등이 공사에 참여했다. 바티칸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므로 드넓은 관내에는 볼 것이 많고 전부 살펴보자면 며칠이 걸린다. 입구에는 견학시간별 코스가 색깔로 나뉘어 있으므로 자신의 흥미와 목적에 맞추어 둘러보도록 한다. 매주 수요일의 10:00 에는 교황이 궁전의 창으로 나온다.

- **성 베드로 광장**은 바티칸 시국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전의 바로 앞에



조성된 광장이다. 광장은 로마 시의 보르고 리오네 구역과 동쪽으로 접경을 이루며, 최대 3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성 베드로 광장의 설계자는 잔 로렌초 베르니니이다. 베르니니는 성 베드로 대성전을 설계하면서, 가톨릭교회가 그곳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있다는 뜻을 전하고자 했다. 그는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성 베드로 대성전의

뒀을 머리로 두고, 반원형의 회랑 두 개를 팔로 묘사함으로써 성 베드로 대성전이 두 팔을 벌려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 **베드로 대성당**은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미켈란젤로의 설계에 의해 재건된 것이다. 우선 이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에 주목. 성당 안을 장식하는 것은 물론 르네상스, 바로크 미술품이지만 특히 미켈란젤로의 대리석 조각 「피에타」는 유명하다.



- 시스티나 성당은 건축 양식이 타나크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전하며,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산드로 보티첼리 등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이 그린 프레스코 벽화가 구석구석에 그려져 있다. 그 가운데서도 미켈란젤로는 교황 율리오 2세의 후원을 받으면서 1508년에서부터 1512년 사이에 성당의 천장에 12,000점의 그림을 그렸다.

시스티나 성당은 1477년에서 1480년 사이에 기독교의 오래된 옛 대성당을 복원했던 교황

식스토 4세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 기간에 피에트로 페루노, 산드로 보티첼리, 도메니코 기를란다요를 포함한 화가 무리는 모세와 그리스도의 생애를 묘사한 프레스코화 벽판 시리즈를 만들었다. 그 그림들은 1482년에 완성되었으며, 1483년 8월 15일 성모 승천대축일 기념 미사 때 식스토 4세에 의해 축성되었다. 식스토 4세의 치세 이래, 시스티나 성당은 교황이 종교적·직무상의 활동을 하는 장소로서의 소임을 해 왔다. 오늘날에 이곳은 전 세계의 추기경들이 모두 모여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종교적 의식인 콘클라베를 여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 아울러, 교통체계는 대부분 순환형식을 취하고 있음. 이는 신호체계에서 신호 대기에 따른 자동차 멈춤을 해소하여 자연스런 교통흐름을 유도할 수 있음.

☞ 최근 우리나라의 지방 중소도시 도로교통시스템을 순환형으로 바뀌가는 실정인어서, 우리 구도 도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탈리아에서는 정부에서 도로건설 등 국가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국가와 지자체간 협업, 철저한 유적보호 정책, 철저한 사전준비 이행, 건설 도중에라도 문화유적 보호를 위해 건설 중단,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시민들 의견 전적으로 반영, 도로공사와 관련한 모든 의견들을 수렴·반영 후 공사를 시행함.

☞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기간사업 추진 시 사전 절차나 심도 있는 국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배제하고 공사를 강행하면서 공사 중단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음.

☞ 이러한 부작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모든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국민과 충분한 소통 후 관련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시행함으로써 공기를 단축하고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음.

IV 연수에 따른 재정건설위원회 참고사항

1. 자동차 및 교통체계

○ 이탈리아 로마를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소형차 위주임. 도심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궁여지책으로 소형차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차를 사회신분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부분의 이탈리아 국민들은 자동차를 생활필수품으로 생각함. 이는 투명한 시민의식과 특권의식이 배제된 성숙된 시민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산유국이 아닌 이탈리아의 경우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오염 방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에도 소형차나 전기차 등 소형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소형차 위주의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광고물

○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에서의 느끼는 공통점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광고물이 없어 도시 전체가 깨끗하고 정비된 느낌을 갖게 함. 특별한 상점(약국, 담배판매점 등) 이외는 돌출간판이 거의 없는 실정임.

－ 이는 수 천년 동안 이어지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에도 2009년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간판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면서, 정비된 간판은 정비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3. 문화재 관리

○ 이탈리아 친퀘테레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관광자원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거환경 인프라의 구축이 전무하여 상당한 불편을 안고 살아감. 이는 획일적인 도시계획 보다는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민적 의식수준이 높음에서 비롯됨.

☞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도시계획사업 추진 시 획일적인 개발보다는 보존가치를 지닌 부분에 대하여는 보존 등을 위해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추진함이 바람직함.

4. 협동조합 육성

○ 협동조합의 활성화로 일자리창출 및 유통체계의 확립으로 소비자에게 값싸고 질 좋은 식료품 제공.

－ 특히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55% 이상)으로 여성들의 사회진출 기여.

－ 주요 거점마다 협동조합매장이 설치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쉽게 접근 가능.

－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자국차원을 넘어 글로벌협동조합을 구상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글로벌협동조합 시대에 대비하여야 함.

5. 관광인프라 구축 및 육성

○ 이탈리아에서는 인구 2만명의 작은 도시 ‘오르비에토’를 슬로우시티로 육성하여 연간 200만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모시켰음. 이는 소도시의 운동을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이 적극 호응하여 일궈낸 성과임.

－ 대형 마트의 진입을 규제하고, 친 환경과 소음방지를 위해 자동차의 진입을 막았으며(일반 관광객들은 궤도열차를 이용하여 ‘오르비에토’에 도착하여 셔틀버스로 관광지 접근), 도시 전체의 기반시설인 도로는 수 백년 전에 설치한 도로(작은 돌로 바닥을 깔았음)를 유지하고 있고, 무분별한 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 훼손을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한 것이 관광자원화에 일조를 하게됨.

☞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 획일적인 도시개발을 지양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를 개발하여 독창화 할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입안 시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안산자연공원과 자락길 등을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6. 공사현장 관리

○ 이탈리아에서는 문화재가 많아 가급적 공사를 자제하고 있으나, 상·하수관 관련 공사 등 불가피한 공사일 경우 공사현장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가림막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어떤 공사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